

84년 국내石油類수급동향

I. 국내石油類 수급動向 (총괄요약)

가. 原油도입

- 84년 總導入物量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199,508千배럴로서 D-D가 전체의 53.4%, 스파트가 31.7%, 메이저 9.0%, G-G가 5.9%임.
- 中東의존도는 66.8%이며, 東南亞 19.5%, 아프리카 5.8%, 中南美 7.9%임.
- 總 도입금액은 57億 9,838萬달러(C&F)이며, 平均 導入單價는 29.06달러임.

나. 原油처리량 및 가동률

- 84년 總 原油처리량은 전년보다 5.9% 증가한 201,957千배럴이며, 그중 質加工 처리량은 28,237千배럴임.
- 84년 精油社 평균가동률은 69.8%(質加工 제외 시 60.1%)로서 전년보다 3.7% 상승

다. 石油製品 공급

- 總供給은 전년보다 7.2% 증가한 225,437千 배럴로서 생산이 6.6% 증가한 201,044千배럴, 輸入이 12.4% 증가한 24,393千배럴임.
- 製品生産은 휘발유, 경유, 나프타, 항공유등 輕質油의 收率이 높아졌고, 반면에 B-C油 收率

이 40.6%(83년 44.1%)로 낮아졌음.

- 製品輸入은 輕油와 가스류가 전년보다 50% 이상씩 증가됐고, B-C油는 전년수준, 나프타는 12.5% 감소했음.
- 製品輸入額은 4.2% 증가한 6億 6,063萬달러임.

라. 石油製品 수요

- 總 수요는 전년보다 5.1% 증가한 218,424千 배럴로서 이 가운데 내수가 1.6% 증가한 194,417千배럴, 輸出이 45.4% 증가한 24,007千배럴임.
- 내수중에서도 一般 民生用인 民需는 불과 0.7% 증가했고, 軍納과 병커링에서 1.6% 및 78.0% 증가했는데 民需增加率이 낮은 것은 産業, 취사난방, 運輸用 油類소비가 8-19%씩 증가에도 불구하고 發電用 油類소비가 23%나 감소했기 때문임.
- 산업용 油類는 化學, 건설, 機械金屬등의 油類 소비증가율이 크며 油種別로는 휘발유, 경유, 나프타등 輕質油 계통과 가스의 소비증가율이 높음. 소비가 감소한 油種은 B-C油 및 용제의 두 油種이고 산업도 시멘트 및 철강의 들뿐임.

마. 原油 및 製品 재고

- 84년 12월말 현재 政府 備蓄油를 제외한 民間 備蓄은 原油 8日分 製品 20日分으로서 總 28日分임.

II. 原油導入實績

가. 導入先 및 導入地域別 동향

1) 導入先別 동향

- 總 原油도입물량은 83년보다 3.4% 증가한 199,508千배럴을 도입하였는데, 82년 이후 最大導入先이 된 D-D 도입이 단연 많아 全体物量의 53.4%인 106,486千 배럴로 14.5% 증가하였고,
- 83년 國際原油價가 하락하고 石油市場이 안정된 이후 계속 증가하기 시작한 스파트가 84년에도 63,199千배럴을 도입, 16.9%의 높은 증가율로 전체의 31.7%를 차지하고 있음.
- 반면, G-G와 메이저는 30~40%의 감소율을 나타내 각기 10% 미만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음.
- D-D 도입의 多物量 導入國은 이란(D-D의 23.5%), 쿠웨이트(13.3%), 에콰도르(11.3%) 順이고, 스파트는 이란(스파트의 22.8%), 오만(19.7%), 인도네시아(18.1%), UAE(16.1%)의 順임.

導入先別 原油도입 현황

(單位：千배럴)

	83 年		84 年		증 감 (%)
	物 量	비율(%)	物 量	비율(%)	
G-G	20,092	10.4	11,869	5.9	△40.9
D-D	93,012	48.2	106,486	53.4	14.5
메이저	25,793	13.4	17,954	9.0	△30.4
스파트	54,072	28.0	63,199	31.7	16.9
計	192,969	100.0	199,508	100.0	3.4

2) 導入地域別 동향

- 84년의 中東 의존도는 66.8%로서 83년의 74.0%보다 7.2%나 낮아진 반면 지역적으로 유리한 東南亞로부터의 스파트 구입이 활발했던 까닭에 東南亞 의존도가 19.5%로 83년의 13.6%보다 5.9% 포인트 높아졌음.
- 中東중에서도 과거 最多導入國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져

39.2%, 23.7%씩 감소한 반면, 이란과 오만, UAE 등으로부터의 도입이 26.8%, 35.0%, 77.9%씩이나 증가하여 이란이 最多導入國, 오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번째 도입국이 되었음. 一總 導入國數는 中東 7개국(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UAE, 중립지대, 오만, 카타르), 東南亞 4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아프리카 3개국(리비아, 이집트, 가봉), 中南美 3개국(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등 總 17개국으로 83년보다 2개국이 증가했음.

導入지역별 原油導入 현황

(單位：千배럴)

	83 年		84 年		증감%
	物 量	비율%	物 量	비율%	
○中 東	142,881	74.0	133,290	66.8	△ 6.7
사우디	58,876	30.5	35,773	17.9	△39.2
쿠웨이트	20,749	10.8	15,773	7.9	△23.7
이란	31,415	16.3	39,819	20.0	26.8
오만	17,853	9.3	24,094	12.1	35.0
U A E	7,080	3.7	12,593	6.3	77.9
○東南아시아	26,301	13.6	38,916	19.5	48.0
인도네시아	8,788	4.6	16,919	8.5	92.5
말레이시아	9,488	4.9	15,266	7.7	60.9
○아프리카	12,053	6.2	11,532	5.8	△ 4.3
○中 南 美	11,734	6.1	15,770	7.9	34.4
計	192,969	100.0	199,508	100.0	3.4

III. 石油類 需給실적

가. 需給현황

1) 84년 1-12월

- 製品 總 공급은 전년보다 7.2% 증가 (국내생산 6.6% 증가, 輸入 12.4% 증가)
- 製品 總 수요는 전년보다 5.1% 증가 (內需 1.6% 증가, 輸出 45.4% 증가)

2) 84년 12월중

- 製品 總 공급은 전년동기보다 7.7% 증가

84 國內製品 需給현황

(單位：千배럴)

	供 給			需 要		
	生 産	輸 入	計	内 需	輸 出	計
1983년 (1-12)	188,681	21,697	210,378	191,293	16,509	207,802
1984년 (1-12)	201,044	24,393	225,437	194,417	24,007	218,424
構 成 比 (%)	89.2	10.8	100.0	89.0	11.0	100.0
前年比增減 (%)	6.6	12.4	7.2	1.6	45.4	5.1
1984년 12 月	19,865	2,818	22,683	19,270	3,591	22,861
構 成 比 (%)	87.6	12.4	100.0	84.3	15.7	100.0
前年比增減 (%)	2.8	62.0	7.7	3.0	101.9	11.6

(국내생산 2.8% 증가, 輸入 62.0% 증가)
 - 製品 總 수요는 전년동기보다 11.6% 증가
 (内需 3.0% 증가, 輸出 101.9% 증가)

3) 84 製品 供給(生産, 輸入) 現況

- 製品 生産

전체적으로는 内需 수요보다 賃加工 수출의 영향으로 6.6%의 生産증가율을 보였는데 國內石油 수요구조의 변화로 油種間의 증가율 격차가 심해져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輕質油類 계통은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나프타

는 정부의 나프타 增産誘導 政策에 따라 24.6%라는 高 增加率을 보인 반면, 發電用燃料 代替로 인해 내수가 감소한 B-C油는 1.8% 감소하였음. 따라서 국내생산 收率도 변화하였음.

- 製品 輸入

국내생산이 크게 증가된 나프타 輸入量은 12.5% 감소했으나, 輕油와 가스類는 국내 수요 不足分 輸入으로 63.0%, 51.8%씩 증가했음. 국내제품 總 輸入額은 6億 6,063萬달러로서 이는 83년보다 4.2% 증가했으며, 總 導入國數는 美國, 日本, 사우디, 싱가포르 등 16개국에 이르고 있음.

주요 油種製品 收率

	휘발유	경 유	B-C油	나프타	항공유	가스류
83 (%)	2.6	25.7	44.1	11.5	4.8	3.2
84 (%)	2.7	27.0	40.6	13.5	5.2	3.2

나. 精油社 가동률 및 原油 처리량

1) 精油社 加동률

- 總 가동률은 83년보다 3.7% 증가한 69.8%이며,

84년 製品生産 및 輸入현황

(單位：千배럴)

		휘발유	등 유	경 유	B-C油	나프타	항공유	가스류	기 타	計
生 産	84 物 量	5,519	9,109	54,156	81,702	27,150	10,469	6,403	6,536	201,044
	增 減 (%)	12.6	△ 1.0	11.5	△ 1.8	24.6	15.4	4.9	11.9	6.6
	水 率 (%)	2.7	4.5	27.0	40.6	13.5	5.2	3.2	3.3	100.0
輸 入	物 量	-	-	1,780	11,477	4,912	-	6,224	-	24,393
	增 減 (%)	-	-	63.0	5.4	△12.5	-	51.8	-	12.4
	構 成 比 (%)	-	-	7.3	47.1	20.1	-	25.5	-	100.0
	輸入金額(萬달러)	-	-	6,306	32,141	14,302	-	13,314	-	66,063

註：輸入物量中 가스류는 프로판 3,965千배럴, 부탄 2,259千배럴임.

□ 特別資料 □

賃加工처리를 제외한 국내 純粹處理가동률은 3.0% 증가한 60.1%임.

— 精油社別로는 湖油, 京仁, 雙龍이 83년보다 5~16% 높아졌고, 油公과 極東은 오히려 낮아졌는데, 이중 雙龍은 賃加工用뿐만 아니라, 국내 處理가동률이 14.2%나 높아져 122.3%의 가동률을 기록했음.

그러나 最少適正가동률인 75% 이상의 精油社는 油公과 雙龍의 2個社 뿐이고, 나머지 3社는 50~60%대에 머물고 있음.

月別 稼働率 추이

	1月	2月	4月	6月	8月	10月	12月
1983年 (%)	70.1	60.6	53.3	63.5	60.4	66.8	77.8
1984年 (%)	73.3	75.5	67.5	72.5	63.1	66.9	80.4

2) 原油 처리량

— 總原油처리량은 201,957千 배럴로서 83년보다 5.9% 증가하였는데 이중 국내 純粹처리량은 173,720千배럴로 5.6% 증가했고, 賃加工 처리는

84년 精油社 가동률 및 原油처리현황

(單位: %, 千배럴)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計
平均稼働率	1983	78.7 (77.7)	51.1 (39.6)	59.2 (59.2)	106.7 (65.2)	82.9 (82.9)	66.1 (57.1)
	1984	77.2 (75.7)	56.5 (44.1)	67.5 (67.5)	122.3 (79.4)	68.9 (68.9)	69.8 (60.1)
原油處理量	1983	80,416 (1,041)	70,883 (15,969)	12,956 (—)	23,362 (9,083)	3,025 (—)	190,643 (26,093)
	1984	79,151 (1,567) △ 1.6	78,597 (17,250) 10.9	14,832 (—) 14.5	26,854 (9,420) 14.9	2,523 (—) △16.6	201,957 (28,237) 5.9

註: 1) ()은 賃加工 제외시의 가동률 및 賃加工 처리물량

2) 精油社 처리능력 790千 BPSD 기준

雙龍 物量증가에 힘입어 8.2% 증가한 28,237千 배럴을 처리했음.

84년 月別 在庫현황(持續日數)

(單位: 日)

	1月	2月	4月	6月	8月	10月	11月
原 油	12	12	17	15	21	23	8
製 品	18	19	19	20	21	22	20
計	30	31	36	35	42	45	28

다. 原油 및 製品재고(政府 備蓄油 제외)

— 84年 12月末 原油 재고는 8日分이고, 製品재고는 20日分으로서 總 28日分인데, 이처럼 낮은

精油社別 原油 및 製品在庫 현황

(單位: 千배럴)

區 分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정 유	計
84년12月末 현 재	原 油 (持續日數)	1,018 (1.9)	1,904 (3.6)	693 (1.3)*	339 (0.6)	307 (0.6)	—	4,261 (8)
	製 品 (持續日數)	4,022 (7.7)	3,646 (7.0)	4,795 (9.2)	1,210 (2.3)	1,077 (2.1)	893 (1.7)	10,358 (20)

註: * 83년 日日평균 소비량인 524千 BPCD 기준.

이유는 油類 성수기인 탓도 있겠지만, 최근 OP EC 油價崩壞 조짐에 따른 관망태도의 精油社 들 原油도입이 다소 부진했기 때문이다.

-84년 재고는 이란-이라크전쟁 확대와 더불어 精油社 義務備蓄量 확대 시기를 전후하여 증가하기 시작하여 10月末 45일분으로서 피크를 이루었다가 최근 冬節期를 맞아 下降勢에 있음.

라. 石油類 소비동향

1) 需要處別 동향

-84년 국내소비(內需)는 전년보다 불과 1.6% 增加한 194,417千배럴을 소비하였는데, 一般民生用인 民需는 0.7% 증가에 그친 반면, 軍納과 병커링에서 1.6% 및 78.0% 증가한 것에 의한 것임.

-0.7% 증가한 民需는 總內需의 93.5%로서 181,797千배럴을 소비하였는데 이는 産業, 취사난방, 運輸用油類의 8~19% 증가에도 불구하고 發電用油類가 23%나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낮아진 것임.

-또한 거의가 運輸用과 난방용 油類 판매가 主要代理店 판매소비는 14.0% 증가한 반면 減少部

門인 發電用 油類는 직매처인 가담에 직매물량이 6.6% 감소함에 따라 직매처 對 대리점 판매비율이 83년에 .64 : .36에서 60 : 40으로 바뀌었음.

-병커링 증가요인은 航空機보다는 海運用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따른 外國籍 외항선들의 M. D. O, M.F.O(B-C油와 輕油의 混合油) 등 燃料油 공급 증가로 輕油, B-A油, B-C油의 병커링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임.

-계절적으로는 84년초 흑한으로 1/4분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 이후는 계속 前年同月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11월까지 나타내다 12월에 약간 증가세로 들어섰음.

2) 용도별 消費동향

-83년에 이어 84년에도 運輸부문 油類 소비가 1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40,100千 배럴을 소비함에 따라 83년 이전까지 국내 單一業種中 最多消費處였던 發電소비를 앞질러 最大消費業種이 되었음.

-취사난방용 油類는 1/4分期中 흑한으로 대량소비됐던 영향으로 83년 증가율 수준보다 약간 높은 8.7%의 증가율을 보여 20,721千배럴을 보였고, 산업은 국내 景氣의 호조로 83년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8.9%의 증가율을 나타내 66,683千배럴을 소비했음.

-그러나 과거 국내최대 消費處인 發電에서 B-C油가 原子力과 유연탄으로 代替됨에 따라 22.9% 감소를 나타냈고, 이 減少量이 運輸, 취사난방, 산업부문의 증가량을 거의 상쇄해 줌으로써 국내 油類소비 증가를 1% 수준에서 억제시켜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음.

-産業內에서는 産業 소비의 51.3%나 되는 化學에서 石油化學用 原料油의 소비증가로 11.4%나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거나 機械金屬, 冶業, 제지, 食品등의 소비도 꾸준히 향상되었음. 建設분야에서 21.4%나 증가한 것은 건설현장의 소비증가도 있으나 各建設業체 빌딩의 난방용 및 建設輸送用 차량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産業에서 油類소비가 감소한 業種은 大消費處가 燃料代替를 감행한 철강과 시멘트 두 업종뿐임.

84년 需要處別 소비동향

(單位：千배럴)

	民 需			병커링	기 타	內需計
	直 賣	代理店	民需計			
83 年	116,244	64,129	180,373	1,985	8,936	191,293
84 年	108,688	73,119	181,797	3,535	9,085	194,417
增 減 (%)	△ 6.6	14.0	0.7	78.0	1.6	1.6
構 成 比 (%)	55.9	37.6	93.5	1.8	4.7	100.0

84년 內需 및 民需의 月別 증가추이

	1 月	3 月	6 月	9 月	12 月
內需當月 (%)	7.7	17.6	2.3	△ 2.2	3.0
民需當月 (%)	4.4	17.1	0.8	△ 3.1	3.1

84년 用途別 消費業種

(單位：千배럴)

	發 電	運 輸	水産海運	취사暖房	産 業	其 他	計
1983년 (1~12)	48,708	33,718	9,118	19,052	61,257	19,440	191,293
1984년 (1~12)	37,591	40,100	9,740	20,721	66,683	19,582	194,417
增 減(%)	△22.9	18.9	6.8	8.7	8.9	0.7	1.6
構 成 費(%)	19.3	20.6	5.0	10.7	34.3	10.1	100.0

84년 用途別中 産業의 細部消費현황

(單位：千배럴)

	化 學	織 維	建 設	食 品	鐵 鋼	機 械 金 屬	요 업	製 紙	一 般 群小業	其 他	計
83년 (1~12)	30,762	6,789	3,932	3,990	4,286	3,015	2,781	2,413	1,914	1,375	61,257
84년 (1~12)	34,272	6,826	4,775	4,180	4,193	3,351	3,019	2,610	2,025	1,432	66,683
增 減(%)	11.4	0.5	21.4	4.7	△ 2.2	11.1	8.5	8.1	5.8	4.1	8.9
構成費(%)	51.3	10.2	7.2	6.3	6.3	5.0	4.5	3.9	0	2.1	100.0

註：기타는 시멘트, 建築資材等

84년 主要用途의 消費변동추이

(單位：%)

	1 月	3 月	6 月	9 月	12 月	全 体 增加率
發 電	△26.7	△11.8	△20.0	△18.5	△21.4	△22.9
運 輸	27.4	26.4	20.5	19.7	18.8	18.9
취 사 暖 房	20.6	21.7	13.5	11.6	4.3	8.7
産 業	7.5	6.3	9.7	8.4	14.0	8.9

내 石油 소비가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하는데 決定的인 요인으로 작용했음.

發電부문 油種別 소비현황

(單位：千배럴)

	B-C油	輕 油	기 타	計
83 年	48,040	657	11	48,708
84 年	36,580	995	16	37,591
增 減	△23.9	51.4	—	△22.9

註：정유사 供給基準

3) 주요 用途別 增減要因 분석

가) 發 電

○總發電量은 10.2% 증가하였는데, 국내 최대 發電수단인 汽力은 7.0% 증가에 그친 반면 原子力에서 31.5%나 증가하였는데, 특히 汽力 發電內에서도 과거 주종연료였던 B-C油가 石炭으로 계속代替됨에 따라 石炭은 136.2%가 증가한 반면, B-C油는 23.9%나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음.

○결과적으로 發電用 B-C油의 감소부분은 原子力과 石炭, 특히 輸入用 유연탄으로 代替되었고 이는 他部門 국내 油類증가량을 상쇄시켜 국

나) 運 輸

○83년에 이어 84년에도 국내油類 소비증가를 주도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83년 하반기 이후 國內景氣 好調와 더불어 20% 이상씩 증가하기 시작한 국내 車輛의 증가와 貨物物動量 및 旅客수송량 증가에 따른 것임.

○84년 총소비량은 40,100千배럴로 18.9%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運輸用 油種이 揮發油, 輕油, LPG 등 경질유류이기 때문에 국내油類 소비 패턴의 경질화를 가속시키고 있음.

○揮發油와 輕油 소비의 증가율은 20% 수준인데

국내 電力發電量 및 燃料수요량

	83 년	84 년	增減(%)
總發電量(百萬km)	48,850	53,808	10.2
汽 力(")	36,907	39,474	7.0
原 子 力(")	8,965	11,792	31.5
水 力(")	2,723	2,399	△11.9
內 燃 力(")	256	143	△44.1
汽力燃料소비량			
石 炭(千 噸)	2,623	6,196	136.2
無 煙 炭(")	2,077	2,481	19.5
有 煙 炭(")	546	3,715	580.4
B-C油(千배럴)	48,040	36,580	△23.9

註：B-C油는 정유사 공급기준

揮發油증가율은 一般乘用車의 급속한 증가로 每月 증가율의 幅이 커지는 추세이나, 輕油 증가율은 84년 하반기 이후 景氣縮小의 영향으로 貨物物動量이 감소됨에 따라 조금씩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83년에 運輸부문 油類소비중 가장 높은 증가율

車輛 및 旅客貨物 輸送量 추이

	83	84	增減%	備 考
車輛台數(台)	773,273	933,455	20.7	(11月末현재)
旅客輸送量(百萬名)	6,041	6,238	3.3	(7月末현재)
貨物輸送量(萬噸)	10,723	12,760	19.0	(")

運輸用 油種別 소비현황

(單位：千배럴, 台)

		揮發油	輕 油	LPG	기 타	計
消費量	83년	3,411	21,660	5,135	3,512	33,718
	84년	4,134	26,456	5,905	3,605	40,100
	增減%	21.2	22.1	15.0	2.6	18.9
車 輛 台 數	83년	295,513	399,152	78,608	-	773,273
	84년	367,347	475,158	90,950	-	933,455
	增減%	24.3	19.0	15.7	-	20.7

註：1) 기타 油種은 航空用 제트 A-1이 대부분임.

2) 車輛台數는 11月末 현재임.

運輸用 輕油 大消費業체 현황

(單位：千배럴)

	83	84	增減(%)
鐵 道 廳	1,582	1,667	5.4
大 韓 通 運	264	320	21.2
天 一 貨 物	55	64	16.5
國 際 通 運	45	54	20.0
高麗콘테이너	31	39	25.8
光 州 高 速	315	331	5.1
天 一 旅 客	109	121	11.0
中 央 高 速	117	134	14.5
忠 南 交 通	55	59	7.3
코오롱 고속	39	44	12.8

(44%)을 보였던 LPG는 영업용 차량의 揮發油에서의 부탄으로의 전환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15.7%의 증가에 머물고 있으며, 차츰 그 增加幅도 둔화되고 있음.

다) 化 學

○화학용 油類소비가 總內需에는 17.6%, 산업용 油類中에는 51.3%를 차지한 34,272千배럴이나 되어 83년보다 11.4% 증가함으로써 산업용 油類소비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石油수요에도 큰 증가요인이 되었음.

○化學의 소비증가 主要因은 燃料油보다는 基礎 石油化學 원료인 에틸렌 생산을 위한 나프타 소비가 蔚山지역과 湖南에틸렌을 합하여 12.4%나 증가한 19,201千배럴이나 이루어진데 있으며, 이는 工場가동률이 100% 가까운 가동률을 지속했기 때문임.

○비료업계도 83년보다는 조금씩 활기를 띠어 나프

化學用 油種別 소비현황

(單位：千배럴)

	나프타	B-C油	LPG	기 타	計
83년	22,368	6,715	322	1,357	30,762
84년	24,921	7,342	491	1,518	34,272
增減(%)	11.4	9.3	52.5	11.9	11.4

註：기타는 燈油, 輕油임.

化学用 나프타 大消費業体 현황

(單位：千배럴)

	83년	84년	增減(%)
油公蔚山公團	7,062	7,989	13.1
湖南에틸렌	10,016	11,212	11.9
南海化學	2,239	2,450	9.4
韓國肥料	1,168	1,368	17.1
韓國綜合化學	120	—	—
嶺南化學	430	338	△21.4
鎭海化學	21	15	—
大韓都市가스	114	152	33.3
서울都市가스	75	85	13.3
釜山都市가스	6	15	—
極東都市가스	2	9	—

纖維用 B-C油 大消費業体 현황

(單位：千배럴)

	83년	84년	增減(%)
韓一合織	1,171	1,048	△10.5
鮮京合織	714	659	△7.7
泰光産業	479	482	0.6
第一合織	280	321	14.6
邦林紡織	290	269	△7.2
삼양사	225	274	7.5
코오롱	224	239	6.7
東洋나이론	197	230	16.8
忠南紡織	204	189	△7.4
원진레이온	171	161	△5.8

타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都市가스用 나프타 수요도 物量은 아직 적지만 큰 幅으로 증가되고 있음.

라) 纖維

○산업부문중 化學 다음으로 石油 多消費業種인 섬유부문에서는 상반기中 纖維類 수출의 호황으로 油類소비증가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10% 이상을 기록했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이 격감되고 내수 纖維製品 판매도 계절적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합세를 나타냄에 따라 전체 油類 소비는 83년보다 불과 0.5% 증가한 6,826천 배럴을 소비했음.

纖維用 油種別 소비현황

(單位：千배럴)

	B-C油	輕油	기타	計
83년	6,405	203	181	6,789
84년	6,438	210	178	6,826
增減(%)	0.5	3.5	—	0.5

註：기타는 輕質重油, 重油, 가스등

마) 食品

○국내食品業系의 꾸준한 성장으로 年初부터 지속적으로 油類소비가 증가되어오다 4/4분기에 약간 둔화되어 83년보다 4.7% 증가한 4,180천배

럴을 소비했음.

○大食品業体에서는 주로 酒類 및 주정 제조업체의 油類 소비증가율이 높으며, 대규모 食品業系는 직접 高熱에너지가 필요한 공정을 燈油나 輕

食品用 油種別 소비현황

(單位：千배럴)

	B-C油	輕油	LPG	기타	計
83년	3,490	332	64	104	3,990
84년	3,625	356	72	127	4,180
增減(%)	3.8	7.0	12.5	22.1	4.7

註：기타는 燈油, 輕質重油 등

食品用 B-C油 大消費業体 현황

(單位：千배럴)

	83년	84년	增減(%)
계 일 제 당	314	318	1.3
서울미원	328	302	△8.0
三養食品	267	267	0.0
農心	151	159	1.1
味元	124	145	16.9
동양맥주	114	127	11.4
조선맥주	109	112	2.8
매한제당	122	111	△9.0
선일포도당	103	101	—
眞露	78	97	24.4
동방유량	104	94	△9.6

油로부터 LPG로 代替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LPG 증가율이 물량은 小量이나 12.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음.

바) 鐵 鋼

○鐵鋼 최대업체인 浦項製鐵의 石炭사용 증가로 B-C油와 輕質重油 소비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몇몇 대기업들의 油類소비에도 불구하고 産業부문에서는 시멘트와 더불어 감소를 나타낸 업종으로 83년보다 2.2% 감소한 4,193천배럴을 소비했음.

○철강업계에서는 부분적으로 LPG로의 燃料油 전환이 차츰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LPG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鐵鋼用 油種別 소비현황

(單位：千배럴)

	B-C油	輕油	輕質重油	燈油	기타	計
83년	3,173	404	271	166	272	4,286
84년	3,089	414	187	176	327	4,193
增減%	△2.7	2.3	△30.9	5.8	20.2	△2.2

鐵鋼用 B-C油 大消費業체 현황

(單位：千배럴)

	83년	84년	增減(%)
浦項製鐵	1,513	1,274	△15.8
東國製鋼	273	318	16.5
仁川製鐵	292	295	1.0
연합鐵鋼	114	132	15.8
강원산업	134	160	19.4
풍산금속	111	101	△9.0
금호실업	92	80	△13.0
韓國鐵鋼	114	115	0.9
한국광업제련	53	58	9.4
삼미중합특수강	17	18	-

사) 機械金屬

○산업부문중 化學의 原料油로서의 증가를 제외하고 燃料油로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인 11.1%를 보여 3,351천배럴을 소비했는데, 이는 84년 중

반기 이후까지 계속된 자동차산업과 電子, 電氣, 機械産業의 수출호조와 내수호황에 따른 油類소비증가에 있음.

○특히 自動車 關聯産業과 電子關聯産業의 대직매처들 소비량이 많이 높아졌음.

機械金屬用 油種別 소비현황

(單位：千배럴)

	B-C油	輕油	가스류	기타	計
83년	1,567	725	369	354	3,015
84년	1,809	684	464	394	3,351
增減(%)	15.4	△5.7	25.7	11.3	11.1

註：기타는 燈油, 輕質重油, 重油 등

機械金屬 B-C油 大消費業체 현황

(單位：千배럴)

	83년	84년	增減(%)
現代엔진	101	140	38.6
三星코닝	114	136	19.3
大韓重機	78	70	△10.2
三星電子	67	81	20.9
金星社	63	90	42.9
大宇造船	25	45	80.0
현대자동차	35	51	45.7
한국강관	39	42	7.7
金星電線	21	24	14.3
삼성전관	17	27	58.8
大韓電線	22	26	18.1
大宇精密	12	18	50.0

4) 84년 油種別 소비실적(別添 1)

5) 주요 油種別 增減要因분석

가) 概況

-83년에 비해 감소한 油種은 韓電用 수요가 격감된 B-C油와 不正揮發油 流出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수요통제를 하고 있는 용제의 2개 油種이며, 나머지 全油種은 증가를 나타냈는데 10% 이상의 高增加率을 보인 것은 揮發油, 輕油, 重油, 아스팔트, 프로판 및 부탄으로 물량으로 보

84년 油種別 消費実績(內需)

(單位:千배럴)

	83	84	前月 実績	83 消費		84		前年對備増減%		84 計 對備
	実績	計劃		當月	累計	當月	累計	當月	累計	
揮發油	4,622	5,581	494	505	4,622	551	5,395	9.1	16.7	△ 3.3
燈油	7,823	8,052	645	929	7,823	940	8,044	1.1	2.8	△ 0.1
輕油	44,767	49,197	4,686	4,796	44,767	5,114	49,906	6.6	11.4	1.4
輕質重油	1,969	2,010	162	196	1,696	201	1,994	2.1	1.2	△ 0.8
重油	829	825	98	90	829	100	933	11.1	12.5	0.5
B-C油	88,024	83,098	5,858	8,153	88,024	7,854	79,773	△ 3.7	9.4	△ 4.0
제트 A-1	3,563	3,845	310	291	3,563	304	3,699	4.6	3.8	△ 3.8
J P - 4	3,968	5,164	450	290	3,968	298	4,181	2.7	5.3	△19.0
나프타	22,858	24,548	2,012	2,181	22,858	2,434	24,927	11.6	9.0	1.5
熔劑	953	1,320	40	93	953	35	800	△62.4	△16.1	△39.4
프로판	3,949	5,150	498	449	3,949	593	5,311	31.9	34.4	3.1
부탄	5,982	6,495	597	524	5,982	596	6,897	13.4	15.3	6.2
Avi-gas	1.5	-	0.1	0.1	1.5	0.1	1.5	-	-	-
아스팔트	1,985	2,155	302	200	1,985	252	2,555	25.9	28.7	18.6
計	191,293 (524)	197,440 (539)	16,152 (521)	18,697 (603)	191,293 (524)	19,270 (622)	194,417 (531)	3.0	1.6	△ 1.5

註: 84년. 실적 잠정치임.

84년 分期別 消費実績(內需)

	1983年					1984年					増減率(%)				
	1/4	2/4	3/4	4/4	計	1/4	2/4	3/4	4/4	計	1/4	2/4	3/4	4/4	計
揮發油	973	1,111	1,174	1,364	4,622	1,162	1,279	1,438	1,516	5,395	19.4	15.1	22.5	11.1	16.7
燈油	2,207	1,683	1,743	2,190	7,823	2,659	1,635	1,655	2,095	8,044	20.5	△ 2.9	△ 5.0	△ 4.3	2.8
輕油	10,507	10,645	10,326	13,289	44,767	12,588	11,771	11,272	14,276	49,906	19.8	10.6	9.2	7.4	11.4
輕質重油	518	429	451	571	1,969	552	459	454	530	1,994	6.6	7.0	0.7	△ 7.2	1.2
重油	197	192	198	241	829	230	217	207	279	933	16.7	13.0	4.5	15.8	12.5
B-C油	22,196	22,537	20,297	22,996	88,024	22,758	19,901	17,898	19,215	79,773	2.5	△11.7	△11.8	△16.4	△ 9.4
제트A-1	790	888	967	919	3,563	851	921	993	935	3,700	7.7	3.7	2.7	1.7	3.8
J P - 4	1,136	812	1,007	1,013	3,968	1,299	896	903	1,083	4,181	14.3	10.3	△10.3	6.9	5.3
나프타	5,168	5,488	6,120	6,081	22,858	6,283	5,371	6,578	6,695	24,927	21.6	△ 2.1	7.5	10.1	9.0
熔劑	186	246	265	255	953	245	227	209	118	800	31.7	△ 7.7	△21.1	△53.7	△16.1
프로판	960	887	925	1,177	3,949	1,428	1,112	1,220	1,552	5,311	48.8	25.4	31.9	31.8	34.4
부탄	1,330	1,500	1,569	1,582	5,981	1,536	1,764	1,791	1,808	6,898	15.4	17.6	14.1	14.3	15.3
아스팔트	183	698	541	563	1,985	191	780	695	889	2,555	4.4	11.7	28.5	57.9	28.7
計	46,351	47,116	45,585	52,241	191,293	51,781	46,333	45,313	50,991	194,417	11.7	△ 1.7	△ 0.6	△ 2.4	1.6

면, 輕質油가 압도적임.
一年初 계획에 비하여 輕油, 나프타, 프로판, 부탄,

아스팔트 등은 증가했고, B-C油를 비롯한 나머지 全油種이 계획보다 부족하였는데 전체물량이

1.5% 차이가 난 것은 B-C油에서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던 것이 가장 큰 요인임.

나) 揮發油(內需의 2.8%) : 83년보다 16.7% 증가한 5,395千배럴을 소비, 年初 계획보다는 3.3% 부족

-증가요인 : 一般乘用車輛(84.11月末 현재 367,347台)이 24.3%나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데 4/4 분기에 들어서서 신규 自動車 登錄台數 증가율이 약간 낮아짐에 따라 揮發油 소비증가율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으나, 계속 15%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다) 燈油(內需의 4.1%) : 83년보다 2.8% 증가한 8,044千배럴을 소비, 연초계획보다 0.1% 부족

-증가요인 : 燈油소비의 주종을 이루는 취사暖房 부문(內需의 70%)에서 1/4분기中的 이상 저온으로 크게 늘어났던 것이 계속 累積되어온 것이나 취사부문에서 가스로의 전환이 많고, 84년 하반기에 평년보다 약간 온화한 氣候였던 탓으로 增加幅이 크게 줄어든 것임.

라) 輕油(內需의 25.7%) : 83년보다 11.4% 증가한 49,906千배럴을 소비, 年初計劃보다 1.4% 증가

-증가요인 : 運輸부문(內需의 53%)에서 車輛증가 및 貨物物動量과 여객 수송량 증가에 따라 22.1%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나 産業부문에서 物量은 많지 않지만 化學 및 건설이 17.8%, 13.6%씩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 되었음. 그러나 난방용 輕油수요는 보일러 代替로 오히려 10.1% 감소한 4,641千배럴을 소비하였고 요업, 건축자재, 一般群小業等도 가스로의 燃料代替가 많아 83년보다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였음.

마) B-C油(內需의 41.0%) : 83년보다 9.4% 감소한 79,773千배럴을 소비, 年初계획보다 4.0% 부족

-감소요인 : 산업용 수요(內需 40.4%)가 11.0%나 증가되었고 外國籍 외항선에 대한 bunker링스

비(內需의 2.5%)도 128.1%나 증가했으나, B-C油 最大需要處인 發電부문(內需의 45.9%)에서 汽力 發電의 有煤炭代替와 原子力發電 증가로 23.9%나 감소함에 따른 것임.

마) 나프타(內需의 12.8%) : 83년보다 9.0% 증가한 24,927배럴을 소비 年初計劃보다 1.5% 증가

-증가요인 : 湖南에틸렌 및 油公蔚山化學公園 등 기초 석유화학업체의 가동률이 거의 100% 임에 따라 石油化學原料用(內需의 77.0%)으로 12.0%나 증가함에 따른 것이고, 83년 가동중지된 韓國綜合化學과 영남化學의 肥料用 나프타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남해화학등 他 肥料業의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사) 가스류(內需의 6.3%) : 83년보다 22.9% 증가한 12,208千배럴을 소비, 年初계획보다 4.8% 증가

-증가요인 : 프로판은 소비의 81.5%를 차지하는 취사부문에서 34.1%나 증가했고, 부탄은 소비의 85%를 차지하는 택시용 소비가 14.8%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아) 其他油種

-Jet A-1 : 總消費의 74.3%인 大韓航空의 소비는 0.6% 감소한 2,749千배럴을 소비했으나, 外國籍 항공기에 대한 bunker링스의 19.2% 증가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3.8% 증가한 3,699千배럴을 소비.

-熔劑 :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不正揮發油의 原料로 多量 쓰이던 것을 통제함에 따라 16.1%나 감소한 800千배럴을 소비

-輕質重油 : 最大需要處인 水產海運(內需의 56.7%)에서 9.6% 증가함에 따라 鐵鋼의 30.9% 감소에도 불구하고 1.2% 증가한 1,994千배럴 소비

-아스팔트 : 건설수요(內需의 83.1%)에서 32.4% 증가함으로써 28.7%나 증가한 2,555千 배럴을 소비. * 〈石油開發公社·주간石油뉴스〉